

# 순천시-순천대, '글로벌대학30' 선정 위한 토론회 개최

### 지난 세차례서 지·산·학 협력 모델 발굴위해 머리 맞대 오는 18일 네번째 토론회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주제

순천시는 10월 글로벌대학30 본 지정 평가를 앞둔 순천대와 함께 네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순천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열린 세 차례의 토론회는 '그린 스마트 팜', '우주항공 및 첨단소재', '특화분야 강소지역 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지·산·학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들

이 머리를 맞댔다. 네 번째 토론회는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오는 18일 14시 순천대학교에서 열린다. 시에서는 국·과장들이 주요 토론자로 나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대학이 앞으로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전략 수립에 시의 의견을 제시했다. 순천대에서도 각 분야의 교수들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순천

의 내·외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글로벌대학30 본 지정을 앞두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향성을 다듬어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 장구를 마련하여 순천대가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는 글로벌대학30 본지정 평가에 앞서 9월 초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10월 초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10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시, '관광형 캐릭터'로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 관광형 캐릭터 및 상품화 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광양시가 광양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관광형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해 관광관광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등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11일, 임제기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형 캐릭터 및 상품화 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로부터 관광형 캐릭터와 상품화 디자인, 캐릭터 활용 전략,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 등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응

답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발된 관광형 캐릭터는 광양대하마, 광양불고기, 인사리공원 등 광양의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광양 대표 캐릭터로 경쟁력을 갖춘 '매돌이'가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정으로 활약해 감성을 사로잡는다. 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광양의 9경 9미 등 대표관광자원을 연계한 응용형 이모티콘 40종, 관광기념품 등 시간 16종 등을 구현하고 캐릭터 및 디자인 관리 매뉴얼 제작도 완료할 방침이다. 광양=김현근기자

### 여수시, '예술의 섬 장도' 관람객 편의 제공 힘써 동백꽃 이미지화 빨강·노랑·초록 우산 제작...포토소재 활용



여수시가 예술의 섬 장도를 찾는 관람객

이에 여수시는 우산 겸 양산을 제작해 장도 입구에 비치했으며, 탐방객 누구나 장도 경비실에서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제작 우산은 빨강·노랑·초록 세 가지 색으로 빨강은 꽃잎, 노랑은 수술, 초록은 상징하는 동백꽃을 이미지화해 산뜻한 컬러로 포토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를 상징하는 우산이 포토 소재로 널리 이용돼 장도 홍보는 물론 여수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MICE개최 최장지도도 밝힌 장도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고흥군, 주민 쉼그늘 조성...여름철 큰 인기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벤치 설치로 무더위 쉼터 마련



고흥군은 주민 쉼그늘 조성사업을 통해 마련된 쉼그늘이 여름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쉼그늘 조성사업은 여름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이나 벤치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고흥군은 지난해 읍·면·읍으로부터 신청지를 접수받아 적정 대상지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에 12개소의 쉼그늘 설치를 완료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기 사용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나무 그늘 아래 설치된 벤치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자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이번 쉼그늘 조성과정에서 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콘크리트 포장 제거해 수목이 호흡하고 수분을 잘 흡수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육환경까지 개선하면서 쉼그늘을 조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보호수만을 대상으로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자체예산을 확보해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생육환경개선과 동시에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그늘을 조성할 것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내년도 쉼그늘 조성을 위한 최고의 대상지 선정에 위해 2024년 쉼그늘 조성 대상지를 8월 중에 신청받기로 했으며, 내년도 사업은 고흥군 나무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경수를 활용해 더 많은 곳에 쉼그늘을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기동채재본부

### 보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납부'

보성군은 8월 주민세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9,768건, 2억 1천7백만 원, 사업소분 2,724건, 2억 5천6백만 원 총 4억 7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소득에 관

계없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당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대상이다. 보성=김덕순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